

# 순창군 - 육군기계화학교 교류협력 '맞손'

##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 확대해 나가기로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육군기계화학교(교장 오광세)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26일 전남장성 상무대에서 육군기계화학교와 문화·관광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자매결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황숙주 군수와 오광세 소장 등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문산 등 전적지와 강천산군립공원과 섬진강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순창군과 아시아 최대 군사교육 시설인 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와 실질적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성군에 위치한 상무대는 보병, 포병, 기계화(기갑), 공병, 화차 5개 전투병과학교로 연간 3만명 이상의 육군 간부와 병사 교육을 책임지는 전문교육기관이다.

장교, 부사관, 훈련병 등 6,000명이 상주하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대 군사교육시설이다.

순창군과 상무대는 지난 9월부터 간부와 병사의 교육프로그램에 지역의 전적지와 문화탐방코스 반영을 위해서 사전 답사행사 등 지속적 협의를 추진해 이번 업무협약을 이끌어 냈다.

실제 지난 10월 진행된 간부급 대상 탐방에서 회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육군기계화학교(교장 오광세)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산 전적지와 강천산 군립공원 등의 탐방코스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로 조사됐다.

군은 관광지 및 산업시설 코스를 확대하고 육군기계화학교를 시작으로 상무대 5개 병과학교로의 확대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교육 및 부대개방행사 등 교류활동은 물론 봉사활동, 농·특산물 유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육군기계화학교와 순창군이 업무

협약을 통해 서로를 알고 또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기계화학교를 시작으로 아시아 최대 군사교육시설인 상무대와 실질적 교류를 이어가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류협력사에서 순창군은 상무대에 도서 400권을 기증해 뜻을 더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관촌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열려

지역민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 동안 배운 솜씨를 뽐내는 흥겨운 한마당이 열렸다. 임실군 관촌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관)가 주최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가 지난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문화의 집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심민 군수, 김종민 면장 등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이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풍물과 난타, 민요 등 8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솜씨를 뽐냈다.

또한 지역 가수의 공연과 경품 추첨 등은 관람객과 참여자의 흥을 돋구고 다문화가정 위문품 전달을 통해 지역민과 하나 되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관촌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촌면사무소(☎640-4292)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호원대 응급구조학과 졸업생, 해양경찰공무원 최종 합격

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졸업생 5명(08학번 최영재, 10학번 김건우, 김현수, 성희락, 임일국)이 2017년 제2차 해양경찰공무원 응급구조분야에 최종합격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경찰공무원 응급구조분야는 19명 채용으로, 필기시험(서술형), 적성, 신체·체력검사, 서류, 면접 순으로 일정이 진행되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응급구조분야의 채용조건은 응급구조학과를 졸업자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2017년 현재 1급 응급구조사는 전국에 41개 대학에서 년간 1,300명정도 배출되었으며, 현재 15,000명 정도이다.

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2006년 개설되어 전북 유일의 4년제 응급구조학과이며, 또한 전북에서 유일한 미국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인증한 3개 교육센터(BLS(기본인명소생술), ACLS(전문심장소생술), KALS(한국형전문심장소생술) provider)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센터운영과 함께 교내 취업역량강화사업, 특성화사업을 통하여 졸업전 전공관련 다양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순산=김편곤 기자

## 무주군체육회,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200만원 기탁

무주군체육회(회장 황정수)가 2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진국 수석부회장과 이윤승, 주익식 부회장, 배준 사무국장 등이 함께 해 무주군체육회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있는 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한다"라며 "나눔과 기부와 연말에만 국한되지 않고 1년 365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무주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날 접수된 성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관내 저소득층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하림 정읍공장, 장애인복지관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전달

(주)하림 정읍공장(공장장 이재선, 이하 하림)은 지난 22일 정읍시장장애인복지관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직원 식당에 비치한 모금함을 통해 모은 것으로 전 직원이 1년여 동안 자율적으로 모금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재선 공장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았다"며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대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읍시장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하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금은 복지사 각 장애인 가정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무주농협,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개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이 최근 무주농협 2층 회의실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무주농협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는 무주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로 무주군 관내 요양원 9곳에 쌀을 전달했다.

아울러, 26일에는 관내 '소외계층 독거노인을 모시고 목욕봉사'를 실시해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으며, 목욕을 마친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한 후 따뜻한 머플러까지 선물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8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0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호지지사 010-664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학교에 복복한 고수 1000명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표지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공장 가까운 장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신화는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